

“해보니 재밌네”, 기술의 발전만큼 확대되는 전자책 시장의 현주소



한국전자출판협회(KEPA)가 주최하고 한국전자책컨소시엄(EBK)이 주관한 '2003 한국 전자책 산업전'이 지난 7월 31일부터 8월 3일까지 서울 삼성동 코엑스 태평양관에서 열렸다.

'이북(eBook)으로 여는 디지털세상'이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건 이번 행사에서는 북토피아, 서울시스템, 조은커뮤니티, 소프트웨이브, 바로북닷컴, 아리수미디어, 에듀존, 위즈북 등 21개 업체가 참여했다. 소설, 아동도서 등 다양한 전자책 콘텐츠와 최신 전자책 단말기, 보안 솔루션 등을 선보인 전자책 비즈니스관, eBook 제작, 전자교과서 체험 등이 마련된 이벤트관, 그리고 전자책 제작 경진대회관 등으로 나누어 진행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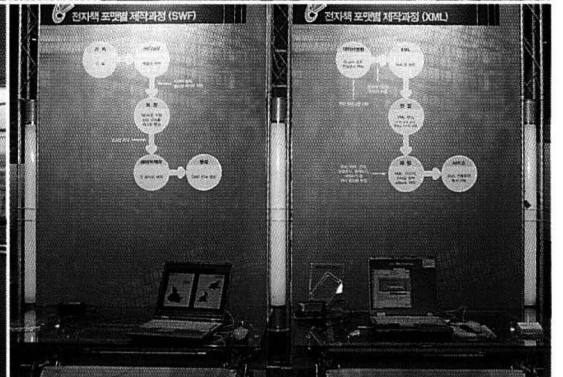
(주)에듀존(대표 하평수)은 간단한 개인 정보를 입력하면 자신이 직접 동화속 주인공이 되어 즉석에서 '맞춤동화책'을 선보였다. 도깨비학교문고는 이 프로그램을 활용해 노아의 방주, 우렁각시 등

46종의 맞춤동화책을 내놓은 상태다. 책읽기를 싫어하는 아이들의 흥미를 유발해 독서를 유도하는 효과가 있다. (주)케이아이엠씨(대표 김형재)는 동영상, 음악, 메모 기능을 모두 갖춘 '멀티미디어 북 m-book'을 전시했다. 독자가 각종 멀티미디어 기능을 조작, 편집할 수 있는 '쌍방향 대화형식 전자책'이다. 책의 개념변화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전시이다. (주)디지털온넷(대표 이재한)이 내놓은 것은 '에듀 스타일리스틱 Edu-Stylistic'이라는 '디지털 칠판'이다. 강의자가 멀티미디어 자료를 이용해 발표하면서 착탈식 컴퓨터 tablet computer에 나타나는 교안 위에 전자펜으로 설명을 덧붙일 수 있다. (주)동사모(대표 최석암)는 각종 동화, 학습지를 인터넷상에서 볼 수 있는 미래형 도서관을 전시하기도 했다.

특히 이번 행사는 전자책에 대한 일반인들의 인식이 아직 낮은 점을 감안해 이벤트관과 더불어 PC, 개인휴대단말기(PDA), 휴대폰 등을 통한 전



특히 이번 행사는 전자책에 대한 일반인들의 인식이 아직 낮은 점을 감안해 이벤트관과 더불어 PC, 개인 휴대단말기(PDA), 휴대폰 등을 통한 전자책 서비스와 체험행사가 다채롭게 펼쳐지는 등 전자책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한 것이 특징이다.



전자책 서비스와 체험행사가 다채롭게 펼쳐지는 등 전자책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한 것이 특징이다.

한편 코엑스 컨퍼런스 센터에서 열린 '디지털 문화콘텐츠 시대의 전자책의 역할과 전자책 시장의 발전 전망' 주제의 심포지엄에서 인큐브테크 김현영 차장은 "종이책과 eBook은 공생할 것"이라며 "현재는 종이책의 비율이 압도적이지만, 인터넷 신문이나 인터넷 잡지가 활성화됨에 따라 eBook도 나름의 시장을 형성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김포대학 김경일 교수는 "비용 절감, 휴대편이, 비거리성, 영구성, 변형성, 양방향성 등을 장점으로 내세우는 기술이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고, 컴퓨터 이용인구가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디지털 매체에 대한 친숙성과 디지털 정보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이 가능한 새로운 세대가 성장하고 있다"며 "전자책은 새롭고 경쟁력 있는 산업으로 도약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문화관광부는 지난해부터 전자책의 발굴·보급을 위해 한국전자출판협회, 한국전자책컨소시엄(EBK)과 함께 매월 국내 우수 전자책 2편을 선정, 각각 상금 150만 원과 상패를 수여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eBook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것은 1991년 (재)한국출판연구소가 일본전자출판계 견학단을 이끌고 일본을 방문하고 나서부터라고 할 수 있다. 이듬해 출판계 사람들과 전자산업체들이 모여 한국전자출판협회(KEPA)를 창립했고 2001년에는 문화관광부 주도로 한국전자책컨소시엄(EBK)이 탄생했다. 그에 비해 전자책 시장은 1999년에서야 미 마이크로소프트(MS)가 처음 본격적으로 뛰어들 정도로 초기 단계지만 판매량이 2001년 기준으로 미국에서는 연평균 136퍼센트, 전 세계적으로는 252퍼센트의 속도로 급증하고 있다. [22]

취재 신동섭 기자 · 사진 박신우 기자